

2022년 8월 14일(다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0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반대를 받는 표적인 아드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 마음의 비밀을 밝히시어, 사람들이 진리와 은총을 거부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표징을 깨달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합시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8,4-6.8-10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화답송 시편 40(39),2ㄱ-2ㄷ-3.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4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49-53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교황님 기도지향 - 8월]



복음화 지향 :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11 회 - 의정부교구가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5) ♣

어느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회원들이 '미사 전례'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사만큼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나이, 성별, 직업, 교회 안의 직분, 심지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미사 때는 이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평소 생각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미사 때만은 이런 차이를 넘어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차이는 있어도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오래전 사업차 바티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 날은 마침 교황님을 알현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바티칸 광장에는 인종, 언어, 문화를 달리하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타고 있는 신앙이라는 배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모를 벽참,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전까지는 우리 본당이 전부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우리 가톨릭교회가 인류가 함께 타고 있는 배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바티칸 광장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내가 그 많은 신자와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빵을 떼어 받음으로써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어느 봉쇄수녀원의 기도 시간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성무일도 때 수녀님들의 기도가 간절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 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미사에 참례했는데 보편지향기도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온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주일 날 같은 지향으로 인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가슴 뭉클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사 전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원천과 결정은 전례 거행, 그중에서도 특히 성찬 모임에 대한 충만하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47 항).

진행단계		내용
1단계	성찰하기	개인별 '시노드' 경험 떠올리기
2단계	나누기	시노드 경험 모으기
3단계	생각하고 되새기기	성령과 함께 바라보기
4단계	묵상하기	10가지 핵심주제로 재해석하기
5단계	제안하기	시노드 교회를 위해 제안하기



| 연중 제 20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모 승천 대축일(8 월 15 일) 미사 안내

일시 및 장소 : 8 월 15 일(월) 오후 7 시, 아란다 성당(St Vincent de Paul Church), 미사 후 간식 나눔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바자회 및 모금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22 년 8 월 21 일(주일) 주일미사 후, 성당 및 오라나 교육관
- 행사 구성 : 음식나눔(비빔밥), 바자회
- 후원 및 봉사 : 바자회에서 판매될 생활용품 및 식음료 기부, 행사지원금 후원,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한 봉사
- 문의 : 서은주 데레사, 허준 안토니오, 각 소공동체 반장
- ※ 행사지원금 후원 : 공동체 교무금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성전 입구 교무금함 - 'Youth Support' 지향과 '이름' 기재
- ※ 물품 기부 및 지원금 후원 마감일 : 8 월 14 일(주일)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안내

우리 공동체는 오는 9 월 4 일(주일)에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미사 30 분 전부터 위령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① 합동 위령미사와 미사 전 연도 증 기억하고 싶은 연령 신청 안내

성전 입구 안내테이블에 비치된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봉투에 다음의 정보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과 세례명)

※ 접수방법 및 마감일 : 성전 입구 교무금함에 8 월 29 일(주일)까지 제출

② 합동 위령미사 후 음식 나눔

소공동체(반)별로 준비되는 음식 나눔에 반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음식나눔준비·배식봉사 문의 : 각 소공동체 반장, 허준 안토니오)

③ 한가위 행사와 아버지의 날(Father's Day) 기념

미사 후에는 한가위 행사 놀이(투호, 제기차기 등)와 아버지의 날을 기념한 특별한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ather's Day Appeal (은퇴 사제를 위한 기금) 모금 안내

오는 9 월 4 일(주일) Father's Day 를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에서는 은퇴 사제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모금액은 은퇴 사제 재단(Clergy Retirement Foundation)에 전해집니다. 이 재단은 1890 년대 설립되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은퇴한 사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후원으로 재단은 지금까지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사제들과 은퇴 사제들을 위해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사제들은 개별적으로 살면서 교구 내 본당과 커뮤니티, 병원 등에 미사와 성사, 환자방문 등의 사목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사제들을 위한 기금 없이 이러한 돌봄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은퇴 사제들을 위한 이 기금 마련에 많은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 방법① : 공동체 교무금 계좌로 'Fathers Day'라고 기재해서 온라인 이체 (※ 9 월 4 일까지)
- 참여 방법② : 9 월 4 일(주일)에 Father's Day 특별헌금 봉투를 사용해 봉헌함 또는 교무금함에 봉헌
- 참여 방법③ : <https://app.etapestry.com/onlineforms/CatholicArchdioceseofCanberra/FathersDayAppeal.html>

캔버라 한인회 행사 '한국의 날' (Korean Day) : 2022 년 9 월 10 일(토) Glebe Park, Canberra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별지(행사 안내 포스터)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캔버라 한인회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TheKoreanAssociationOfCanberra/>

| 연중 제 20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㉔

나 홀로 운전족 되지 않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㉕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1.05kg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 뉴스

1000년 넘게 이어진 연구!
 성모 승천 대축일 의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가톨릭교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어떻게 기념하게 된 걸까요?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입문 1]
 성경은 누가 썼을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History vs His Story

프란치스코 교황과

시노드적 교회 쇄신

한민택 바오로 신부(수원교구)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7월 31일	성인 37 아이 12	8월 7일	성인 40 아이 13
--------	-------------	-------	-------------

□ 우리들의 정성 (8월 6일(토)~12일(금))

구민식	김요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황병욱				교무금 \$415 (9가정) 봉헌금 \$230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바자회 후원금 : \$100(이명진), 누적모금액 : \$45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8월 14일, 연중 제 20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8월 21일, 연중 제 21 주일)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4일) 루카반 → (21일) 요한반 → (28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21일) 성당 바자회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백지아 스텔라(유아), 이수민 스텔라(마태오반), 임채숙 마리아(요한반) (이상 15일), 남궁울리 울리아나(초등, 17일)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백종민, 김민영(로셀리나, 마르코반)의 딸 백시아(가브리엘라), 백지아(스텔라)의 유아세례를 축하하며 공동체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53>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